

##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 International Women's Day

1857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뉴욕시의 거리에 나와 저임금 및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첫 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 후 자신들의 기본권을 획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성들의 시도는 전 세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여성의 날’을 지정하는 안이 17개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그 날을 기념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11년 3월 19일 백만이 넘는 남성과 여성들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계 1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희생된 2백만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러시아 여성들은 1917년 2월의 마지막 일요일 “빵과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부터 4일 후, 러시아 황제는 폐위되었으며 임시 정부는 여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이 날이 바로 율리우스력으로 2월 23일,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쓰이는 그레고리안력으로 3월 8일이었다.

1975년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은 그 해를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첫 세계여성회의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1977년 12월 UN 총회는 여성의 권리와 국제 평화를 위한 UN의 날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향후 덴마크 코펜하겐(1980), 케냐 나이로비(1985), 중국 북경(1995)에서 열렸던 세계여성회의는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 한국여성대회의 역사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 기념행사를 치러왔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맥이 이어지지 못하다가 해방 후 부활하게 되지만, 1948년 이후에도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에 계승되었다.

1985년에는 ‘민족·민주·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였고 86년에는 ‘민주화와 여성생존권’, 87년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가 되어 1999년까지 32회째(2016년 3월 5일) 한국여성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여성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참여로 연인원 1200~1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여성문화행사로 자리매김 되어져 왔다. 이 행사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주부, 대학생, 일반시민, 지식인, 종교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여성과 남성들이 모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전국적인 기념행사로 열리고 있다. (한국여성대회 자료)